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새만금 산업용지 전환 홍보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회장 김중대)는 29일 오전 8시 30분, 부안비치힐 앞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전환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새만금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새만금의 미래는 산업용지 확보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만금지원협의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수막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산업용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만금 산업용지 전환과 관할권 확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실시

고창군이 오는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5개 반으로 구성된 '물가대책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품 21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신속히 파악·관리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고창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임산물 부정유통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고창전통시장 6개소에서 '추석 맞이 장보기 행사'가 진행되며, 10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가 추진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산시스템 중단 대응 현장점검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불편 최소화 총력

정읍시가 국가 전산시스템 일시 중단 상황 속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응에 나섰다.

29일 이학수 시장은 최근 대전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자 신대인을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인감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의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주민센터들



정읍시가 국가 전산시스템 일시 중단 상황 속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현장 점검과 대응에 나섰다.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살폈다.

또 모든 부서에 민원인 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읍·면·동장들에게는 주민서류 발급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관 간 연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부 책임이다"라는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해 주민 불만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 전산망 중단이라는 돌발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고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정보시스템 중단 사고 대책회의

군민 불편 최소화 집중

고창군이 29일 오전 삼척읍 군수주재로 정부정보시스템 중단 사고와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군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오후 8시20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24 등 주요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고창군은 27일부터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긴급대응반장인 행정지원과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 상황 관리 담당자를 배치했다. 업무 연속성 계획에 근거해 전산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도 수기 접수 및 처리, 대체 절차 안내, 처리 기한 연장, 소급 적용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고창군은 사고 대책 회의에서 복구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한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심 군수는 회의에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서비스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처리할 수 없는 '정부24 민원 서비스'인 전입신고,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주민등록 발급, 재외국민 등록 및 해외체류 신고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세한 안내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 시스템, 장사정보시스템 등 오류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이나 유선 신청을 통한 수기 처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군민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119는 영상신고가 불가해 직접 유선전화로만 신고 가능하며, 문자신고는 112로 우회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로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오늘 신청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이달 말 신청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공모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 참여를 통해 지역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경제 활력 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급된 기본소득이 관내 상권과 농어업 유

동향을 통해 선순환되도록 제도 설계에 힘을 기울인다.

권익련 부안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라는 이중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이번 공모에서 반드시 선정돼 부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소비촉진 · 관광 홍보까지

정읍시 농식품부, 세종청사 광장서 상생 직거래 장터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광장에서 '상생 소비 활성화 직거래 장터'를 열어 정읍 농·특산품 홍보와 소비촉진에 나섰다.

2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는 생화학, 태추단감, 멜론을 비롯해 30여 종의 농·특산품을 선보여 농림부 직원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는 생화학과 캐리 전식 등 무료 시음·시식 코너도 운영돼 정읍 농산물의 맛과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단품마인 소꿉물' 온라인 홍보전이 병행돼 현장 판매는 물론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정읍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방문해 "정읍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상생하여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직원들과 관계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 정읍 특산품 구매에 동참하며 현장은 활기찬 장터 분위기로 가득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광물' 온라인 홍보전이 병행돼 현장 판매는 물론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정읍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

이학수 정읍시장, 추석 맞이 전통시장 안전 점검

정읍시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안심 장보기를 도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에 예상되는 가운데 화재나 시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샘고을시장에서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도시안전국장, 관련 부서 공무원,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시장 내 주요 구조물의 손상과 균열, 전기설비의 누전차단기



와 접지 상태, 가스 배관과 차단기 이상 여부, 소화기 비치와 비상대피로 확보 상황 등이었다.

이학수 시장은 "전통시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추석명절 장보기'로 따뜻한 정 나눔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 참채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시는 29일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대인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농산물과 제수용품,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위축된 상인들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며,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도 명절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